

■ 함께 푸는 미스터리 <10> 해답

死者의 심판

사무실로 돌아온 노만석 수사과장은 박다선부시장, 이장상형사, 장수미씨 그리고 김기만형사 등 핵심증인들을 소집했다.

“이 사건에서 세가지 일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교수는 입을 열었다.

“하나는 경찰이 도착하기 몇분전에 강풍성씨집에서 나오는 2발의 총성을 들었다는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도조사는 살인무기가 3번 발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방은 장미령씨를 살해하고 두번째 총알은 박다선부시장을 부상시켰고 세번째 것은 강풍성형사의 뇌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교수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목소리씨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들과 노과장은 그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으나 최교수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저를 괴롭히는 일은 증인들중 한분이 사건이 일어난 밤에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교수는 박다선 부시장쪽으로 돌아섰다. “선생께서 그날 밤 피의자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점이 저는 몹시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살아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바로 선생이십니다.”

“저도 그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이렇게 어깨에 구멍이 나지도 않았을테니깐요.” 박다선씨는 말했다. “박 선생님, 바로 그 구멍이 저를 괴롭히는 세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선생의 셔츠에 묻은 피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중 일부는 선생이 강풍성형사를 쏘을 때 선생께 튀어 간 강형사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요! “ 박다선씨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게 살인죄를 씌우자는 건가요? 내가 무엇때문에 강풍성씨를 죽이려고 했겠소?”

“선생이 누구를 죽이고 싶어했는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최교수의 말은 이어졌다. “그러나 장미령씨가 살해되던 날 밤, 그리고 그전의 다른 날밤에도 장씨를 훔쳐 본 사람은 선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씨가 경찰을 부른 직후에 선생이 장씨집 바로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됩니다.

장미령씨는 강풍성과 이장상이라는 적어도 두사람의 친구를 경찰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씨가 이들 두 형사중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정원에 있던 사람은 강풍성씨도 아니고 이장상씨도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씨가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제3자일 것입니다. 경찰이 선생에게 이야기한 뒤 선생은 장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녀에게 입조심하라고 다짐했으나 이번에는 장씨가 총을 끄집어냈을 지 모릅니다. 장씨는 선생을 내쫓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기록에서 경찰을 호출했다가 수화기를 내렸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런 스캔들은 선생의 일생을 망친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요. 장씨와 둘이서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 장씨의 총이 발사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선생은 장미령씨집을 떠나면서 강풍성형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따라갔거나 또는 총을 겨누면서 그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간 뒤 그를 쏘 죽이고 마치 살인범이 자살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선생은 스스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같은 총으로 자기의 어깨를 쏘지요. 그것이 바로 목소리씨가 들은 두번째 총성이었습니다. 물론 선생은 자살처럼 보이기 위해 강풍성씨집에 총을 남겨 두었지요. 강형사집 정원에서 자기 어깨를 쏜 뒤 선생의 피로 강형사의 피를 덮기 위해 셔츠로 상처를 싸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가 추측입니다. 저는 그중 아무 것도 증명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을 푸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이나 강형사집 의자에 묻은 피의 유전자검사를 한다면 선생의 셔츠에서 강형사의 피와 의자에서 선생의 피를 찾아낼 지도 모릅니다. 또 강형사집 정원을 뒤지면 제3의 총탄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주 뒤 검시결과 강풍성형사는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박다선씨는 공판을 대기중이다. **ST**